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2월 24일(주일) 제1472호

“구세주 탄생, 다 찬양하여라”

23~24일 성탄주일예배, 25일 성탄가정예배
24~25일 성탄절 콘서트, 크리스마스 블레싱
31일까지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온누리교회 '성탄주일예배'는 12월 23일(토)과 24일(일) 국내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12월 25일(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성탄가정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콘서트'가 12월 24일(일)과 25일(월) 열린다. 12월 24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 25일(월)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가 진행된다.

'성탄절 콘서트'에서는 손범수 아나운서, 진양혜 아나운서, 영화배우 강석우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김영미, 색소폰 연주자 이광재, 가수 범키, 이한진 브라더스밴드, 개그우먼 조혜련, 배우 최강희, 크룩스, 더 블레싱, 하다쉬뮤직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교역자 뮤지컬'도 이어진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서빙

고온누리교회 담당),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전한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는 '본당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본당 입장권'은 신청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성도들을 위한 성탄절 콘서트에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도 '성탄절 콘서트'가 열린다. 각 캠퍼스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에는 11개 공동체 104개 팀이 참가한다. 전국 지역교회와 쪽방촌, 다문화센터 등지를 방문해서 성탄예배, 어린이사역, 전도사역, 문화공연, 선물나눔, 블레싱 등을 하고 있다.

미디어사역본부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전시회'는 연말(31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제작한 '크리스마스 메시지 카드'를 전시한다.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성탄절(12월 25일)부터
부활절(3월 31일)까지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성탄절(12월 25일)부터 부활절(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한마음헌혈원 헌혈카페를 방문하면 된다. 국내 온누리교회를 찾아오는 헌혈버스에서 해도 된다(일정 추후 공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헌혈 캠페인 '인증샷과 소감'을 전송하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준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을 검색하면 된다. / 김예은 기자 ye2un@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3주차

월~토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벌써 3주차를 맞이한다. 3주차인 12월 25~30일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세상을) 거절함'을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를 이어간다. 이기훈 목사, 조호영 목사, 최성민 목사, 이기복 목사, 신동식 목사, 이서진 목사가 설교한다. 1월 1~6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 1월 8~13일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 1월 15~20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 주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유튜브, CGN Live)로 참석하면 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2024년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 역량을 강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자는 취지도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온누리교회: 온라인(www.onnuri.org), 전화(02-3215-3253, 3264, 3618, 3265)
서빙고 재정팀, 양재목회지원실

▶ CGN: 온라인(www.cgntv.net), 국세청 홈택스, 전화(02-769-2243)

▶ NGO 더멋진세상: 온라인(www.abetterworld.or.kr), 국세청 홈택스, 전화(02-2271-2248)

홈택스 전자기부금 신청

▶ 단체명: 온누리교회, 고유번호: 106-89-00598, 기부금법령: 종교단체 기부금(41번)

▶ 마이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 기부금공제요청 금액(온누리교회 현금 1년 총액) 입력

2023-24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

2023-24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를 국내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금) 서빙고와 양재 오후 4시, 7시, 10시, 부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7시, 10시, 남양주 오후 10시, 평택 오후 9시, 강동, 양지, 영종 오후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1월 1일 오전 9시, 11시, 부천 오전 9시, 수원, 대전 오전 10시, 남양주, 인천 오전 11시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평택, 강동, 양지, 영종은 신년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예배를 12월 25일(일) 주일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25분) 본당에서 드린다.

평택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국내 여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섬김껏 섬기고, 젊은 부부와 차세대 양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는 "평택온누리교회가 평택과 안성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스페인의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들이 사랑한다.”

다음 날 정오 신문사 앞에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 속에 살고, 치유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요셉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가장 건강하게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용서로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유언에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창 49:22~24, 개역개정).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는 말이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했습니다. 담을 타고 뛰어넘는 가지처럼, 요셉은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23~24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미움과 질투의 화살을 그에게 쏘았지만, 요셉은 활을 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화살을 쏘지 않고, 도리어 강건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복수를 맡기고, 자기 스스로 복수의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상처’라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형들을 요셉이 만나고,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간청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종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위상과 권세를 가진 요셉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요셉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전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고, 그 울음소리가 궁중의 바로에게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 분노가 쌓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큰 울음소리와 함께 상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힘들고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용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 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4~5절).

요셉의 용서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된 지 7년 정도 흘렀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시간이 13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직후에는 그가 원하거면 형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접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7년, 어쩌면 그보다 오랜 세월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결단은 짧은 순간에 할 수 있지만, 감정이 풀려서 진정한 용서에 이르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

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5~8절).

요셉이 종으로 팔려 온 불행한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행동도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는 것이 형들의 잘못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란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이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지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창 50:20).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 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4절).

요셉이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 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행한 잘못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악을 행했고, 자신을 팔아 넘겼다고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용서는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요셉에게 어떠한 상처를 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로 인한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큰 울음으로 터져 나오면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감추고 외면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할 때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용서의 황금률입니다. 데이빗 A. 씨맨즈라는 상담치유 전문 목회자가 오랫동안 상담해 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과 그 용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문제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용서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마 6:12).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 해설을 붙여서 예수님이 다시 해설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 6:14-15).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 믿고 체험했는지 물으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합니다. 지식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체험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체험하고, 용서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가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인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을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무서운 대리권을 맡기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으로 규정짓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용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을 가장 많이 범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부모로부터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구나’를 체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을 할 때 우리는 짐승같이 되고, 심판을 할 때 인간처럼 되고, 용서를 할 때 하나님 같이 된다.”

용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

용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할지라도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을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가두고, 고통을 주고, 용서하지 않는 한 언제나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보다 힘든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과 복수심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결코 미움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미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 미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단이 좋아하고, 분노가 가득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건너야만 하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복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통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오래할 때 드라마의 인기가 오래 갑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는 1~2회에서 용서를 해버리면 아마 인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작가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수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사람들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면서 인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선포, 악을 선으로 바꾸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를 믿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정말 완전히 용서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하고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년 후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네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창 50:16~17).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요셉을 불러서 하지 왜 형들에게 말했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형들은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에서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막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요셉이 어이가 없어서 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며 17년을 살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형들이 죄책감 속에 살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형들이 불쌍해서 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창 50:19-20).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요셉의 용서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했다면, 그냥 인간다운 삶입니다. 복수는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삶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 십자가를 통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 최선수 장로 소천

故 최선수 장로님에 대한 위임목사의 편지



故 최선수 장로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 최선수 장로님께서 12월 17일, 토론토 자택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최 장로님은 1987년 5월에 온누리교회를 등록하시고, 1990년 9월에 김수웅 장로님과 함께 장로장립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22년간 치과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장로님은 하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설교와 연길에 세운 노블구강병원의 요청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9월에 장로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12명이 모여 처음 시작한 것이 후에 TIM의 기도모임

(구 한남동 기도모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로님의 선교사 헌신이 계기가 되어서 TIM(두란노국제선교회)이 세워지고 장로님을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수 장로님은故 김영길 장로님에게 일대일을 받으셨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일대일 양육자반을 마치신 후 평생 일대일제자양육을 해 오셨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는故 김종인 장로님을 양육하셨고, 선교지에서나 은퇴 후 토론토와 연길을 오가며 많은 분들을 일대일로 양육하셨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경 외곽에 북경반석농장을 세우시고 농장을 통한 7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중국 선교와 지도자 훈련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양육하고 전도한 제자들 중에는 현재 중국에서 목회자로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기독교 사업가로, 학교의 선생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은 반석

농장 외에도 1994년 캐나다와 중국합작의 노블구강병원(연길)의 부원장으로 의료사역도 하시고, 북한 나진 선봉지역의 의료지원사역도 펼치셨습니다. 또 선교사자녀교육센터를 밴쿠버에 설립, 운영하기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2005년 1월에 캐나다에 비전펠로우십 단체를 세우시고 대표로 계시면서 동북아선교연구원과 동북아 선교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 의료사역을 하였던 캐나다 선교사 닥터 서우드 홀(〈조선회상〉의 저자)을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13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자료를 발굴 정리해서 토론토에 2011년 5월에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을 세우셨습니다. 〈선교는 나에게 축복이었다〉(두란노, 2012)는 자서전적인 책의 에필로그에서 지경을 넓혀 주신 축복과 두고 떠나는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선교는 힘들지만 신나고 기

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에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최 장로님의 장례는 토론토 서머나장로교회의 주관으로 27일(수)에 입관예배, 28일(목)에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전 선교본부의 김홍주 목사와 TIM 본부장 한충희 목사가 참석하고 최 장로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김창옥 전도사, 박종길, 도육환, 황종연 목사, 박영희 선교사가 참석합니다. 장로님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상옥 권사님과 아들 최진욱 형제, 두 딸 최소희, 최소연 자매가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의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유족분들과 함께 하고 모든 장례절차가 은혜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이재훈 드림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

바흐(Johann Sebastian Bach) ‘마그니피카트(Magnificat in D Major BWV.243 III. Quia Respexit)’
기를란다요(Domenico Ghirlandajo)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음악 QR

바흐(Johann Sebastian Bach)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작곡한 곡이 두 개 있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Christmas Oratorio)’와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는 이름 그대로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오라토리오(성경의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중창, 합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형태의 교회곡)다. 마그니피카트는 ‘성모찬가’라고 해석하는데, 〈누가복음〉1장 46절에서 “Magnificat anim

a mea Dominum(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니)”라고 마리아가 말한 성경 구절의 첫 단어가 ‘Magnificat’로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많은 작곡가의 작품이 있지만, 특히 바흐의 마그니피카트가 유명하다.

서양미술사를 보면 화가들이 수태고지, 목동들의 경배, 동방박사의 경배 등을 모티프(motif)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성화들을 즐겨 그렸다. 이번에 소개할 성화는 바흐의 마그니피카트에서 나오는 한 장면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으로 알려진 기를란다요(Domenico Ghirlandajo)의 작품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1481, 루브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씬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아직 두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다. 〈누가복음〉1장이 이 기록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배 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배 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눅 1:41~42).

그림 속 엘리사벳은 성경 말씀대로 마리아에 대한 공경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마리아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엘리사벳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그녀들 양옆으로 마리아 야코비와 마리아 살로메가 서 있다. 마리아 야코비는 임신한 듯 보이고, 마리아 살로메는 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배경 개선문에 쓰여있다. 기를란다요는 봉헌자(성화를 의뢰하고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 그림에는 성경에 없는 인물들을 넣으면서도 성경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작품 전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개선문 아래쪽에 ‘McCCCLXO’를 적어놓음으로 그림의 제작연대(1481)를 밝히고 있다.

배경 저편에 항구도시의 전경이 보이는데, 그 항구는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잠깐 쉬는 장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의 쉼표와 같은 사건이다. 기를란다요의 작품과 함께 바흐의 마그니피카트 중 세 번째 곡 ‘아리아’를 들어보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

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니”라는 〈누가복음〉1장 46~48절 내용이 가사다. 마리아의 진정한 깨달음과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소프라노와 함께 이중주 되는 악기가 오보에의 전신인 오보에 다모르다. 이 곡에서 소프라노와 오보에의 이중주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중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이중주 같이 느껴진다. 성령 충만한 어머니의 노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기도가 자녀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 대한 예언이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리고 태중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충만한 성령 안에 있었다(눅 1:15). 특히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마음과 자신을 복되다고 노래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바흐의 ‘마그니피카트’를 들으며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동으로 예수님의 탄생 일을 맞이하자.

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전문가 기고 성탄절의 참 의미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할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한강공동체)

성탄절은 아랍 국가나 중국 혹은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지키는 지구촌 명절 중 하나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를 담은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즐겨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파티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집안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탄절이 휴일이기 때문에 즐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어진 하나의 전통적인 문화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퇴색시켜 놓은 게 산타클로스이다.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의 의미와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트렸다. 굳이 성탄절의 의미와 결부를 시킨다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스러움이 크다.

1980년대 초까지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했던 성탄절 행사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을 것이다. 성극을 하거나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시설을 찾아가 위로 공연을 했던 경험이 한 두 가지씩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살리기에 충분한 경험이고, 교회의 문화였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어린이가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는대!”라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했다. 이와 같은 성탄절에 대한 비성경적 인식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크리스천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성탄 예배를 평소와 달리 특별하게 드리는 이유, 성탄 시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성탄절의 참 의미가 될 것이다.

**인간 구원 계획 시작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하나



**“성탄절은 선물을 받기보다 줄 때 더 의미가 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흘려보낼 때 참된 의미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이자 정신이다.”**

님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간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것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프로젝트를 세우셨다. 그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요일 4:9).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극이나 뮤지컬, 칸타타 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성탄절은 기독교 복음이 시작되는 절기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죄인인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 줄 수 없다.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요일 4:10).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등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셔야 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기독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빌 2:6~8).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웃들을 찾아가 돕고, 은혜를 갚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예수님을 거쳐 교회로 이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시작된 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탄절 정신
‘이웃 사랑 실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에 홀로 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말이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실천하는 ‘엔젤트리’(Angel Tree), ‘사랑앓나눔’, ‘크리스마스 포 유’(Christmas For You)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좋은 사례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선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를 갚는 대상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인 것이다.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께 갚는 것이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기보다 줄 때 더 의미가 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참된 의미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 정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실천할 때 추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사랑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해준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성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금수저와 흙수저

영국에서는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Someone was born with silver spoon in one's mouth)”고 표현한다. 부유한 집안은 은식기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대비해서 사용하는데, 태어난 배경의 차이에 대한 영국식 부러움의 표현보다 훨씬 과장해서 유복한 배경의 사람을 공격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을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여 받는 출발선부터의 차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며 각 사람을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드실 권한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유복함’의 뜻을 경제적 혹은 사회계층 측면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부유하지만 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한 집안은 어떤가? 부유하지만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과장해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유복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도록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삶에 다른 목적을 부여하셨다. 토기장은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이라는 목적 아래 같은 흙으로 여러 그릇을 빚어낸다. 천하게 쓰일 것인지, 귀하게 쓰일 것인지 피조물인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유복하게 시작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결국은 귀히 사용되는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손길을 흘려보내는 게 성경적 정의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비교와 불평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성경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혹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제외하고 비록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한다(로 13:1).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총독과 그 관리들의 권세에 순종했다. 세금을 바쳐야 할 곳에는 세금을, 관세를 바쳐야 할 곳에는 관세를 바치라고 하셨다.** 성경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한다. 하나님이 그 권세에 칼을 부여한 것은 권위에 불순종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이는 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창조 질서의 유지를 의미한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바라보며 그들의 불편함에 동의가 되면서도 출퇴근길 교통을 볼모로 한 시위 방법에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271억을 증액하는 예산안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학교 건설, 교통사고에서 회복 중인 장애인 재활 시설 확충, 정신질환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시설,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 및 돌봄 시설 등 국가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많은 사업이 모두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 탑승 지연 시위는 약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시위해도 정당하다는 PC(정치적 정당성)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국가 예산 사용의 배분 문제는 대부분제로서 게임이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편에 더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에 정중하게 요청하고,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간곡히 설득해야 한다.

국가 예산이 넉넉해서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에 누가 투자할 것이며, 세금을 더 내기 위해 고용이 줄어들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선택했던 그 길을 택하지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태어날 때 혹은 삶 가운데 부여하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대기업 노조원들이 노조에도 속할 수조차 없는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정의롭게 같이 잘 살자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듯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할 곳에 세금을 내고,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자금이 정의롭게 배분되도록 의견을 표해야 한다. 덧붙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고 요청하신다. 국가, 지자체, 교회의 손길조차 닿기 힘든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손길을 흘려보내는 게 성경적 정의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비교와 불평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과 일반은총

고요했던 우주의 롤러코스터, 이제 아기 예수를 노래한다!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미국 뉴저지의 식스 플래그(six flags) 놀이공원에 있는 ‘킹다카 롤러코스터’의 높이는 139m로 세계 최고 높다. 최고 속도 206km/h의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한다. 기차의 마찰음과 사람들의 공포 어린 함성으로 이 롤러코스터가 있는 놀이공원은 항상 시끄럽고,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지구는 우리가 감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지만, 사실 롤러코스터와 비교될 수 없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음속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 동시에 초속 약 30km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지구를

비롯한 8개 행성은 항성인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동시에 태양 자체 역시 초속 약 200km 속도로 우리 은하의 중심 주위를 공전 이동하고 있다.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지만,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롤러코스터와 같고, 우리는 이미 거대한 우주의 은하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셈이다.** 우리 은하만 생각해도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천억 개 존재하며,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의 개수가 수조 단위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지구와 함께 수없이 많은 롤러코스터가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우주는 매우 고요하면서 안정적이다. 우리는 매우 역동적인 우주의 롤러코스터 중 하나인 지구에 올라타고 있지만, 놀이공원 에서 경험하는 소란함이나 짜릿한 공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운동성의 체감은 속도(방향)의 변화인 가속도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의 원운동으로 인해 매우 작은 가속도와 각속도, 우주의 진공상태를 설계하셔서 우리가 무진동과 무소음의 안정을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의 법칙을 조금만 바꾸셔도 인류 전체의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 이 우주는 우리의 현실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고요해 보일 수 있다.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의 우두머리 격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의 체감만을 실제의 삶으로 여기게 만들어 관념적인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게 만들려라.”

고요하고 미동이 없는 우주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대상이거나 막대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가 결코 고요할 수 없음을 말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1).

극단의 역동성을 지닌 시스템은 극단의 질서와 통제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우주를 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벧후 3:7). 하나님의 보전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우주의 고요함과 질서와 아름다움이라는 일반은총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우주와 같이 광대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잃어버린 아들의 돌아움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이다. 우리는 특별한총으로써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야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노래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윤동주 서시 중).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가 막힌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 광대하고 고요한 우주의 ‘두려운’ 설계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었다.** 우주의 수많은 롤러코스터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질서 속에 달리고 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라는 것을 안다. 고요했던 우주의 롤러코스터는 이제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

예수님 향한 사랑과 은혜, 기분 좋은 변화, 전도대상자 중보기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지난 12월 11일(월)부터 막 올랐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내년 1월 20일(토)까지 이어진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된다.

이 추운 겨울, 그것도 새벽부터 그들이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삶에서 기분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전도대상자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기 위해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추운 날씨와 새벽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오는 발걸음을 막아서지 못한다. 예배당에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보따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최은선 성도(신용산공동체)는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참석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한지 모른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생명이 제 안에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집사(이수공동체)는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묵상하고 있다.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진다.

“매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당연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무엇인가 더 특별합니다. 저만의 기도제목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등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자매(SNS청년부)는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결혼과 비전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기도제 목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평소 낮을 가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제가 새벽마다 청년부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박지양 성도(강동온누리교회)도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작은 예수로 변화하고자 애쓰는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했



사진은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원하는 은혜와 응답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안에 남은 좋지 않은 습관들과 죄들을 비워내는 40일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상자를 위해 부르짖는 성도들도 많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인정미 집사(강남A공동체)는 기도하는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떠올랐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회개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온 힘을 다해 전도대상자를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

는 심정으로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하선 권사(강촌공동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모태신앙인 아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한 성도를 만났고, 그와 동역자가 됐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올해 성탄절 콘서트에 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드린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기도회 오는 길에 들으면 좋은 찬양

#동행

삶이 고단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염려도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눈앞의 상황이 어렵고, 힘겨워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커스 위십 곡

#말씀

〈시편〉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두움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유일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 이 찬양을 들으면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은’
이동희 곡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약함은 자량이 되고, 우리의 실패는 간증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소망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란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량이요’
브라운 위십 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 12월 16일 토요일

우리를 따라오시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1~4

김태훈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실체와 맞닥뜨립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

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위 위에서 계시는데 바위를 치면 누가 맞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생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무력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

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반석에게 명령할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생수가

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세상은 알 수 없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12월 18일 월요일

말씀과 동행하기

〈여호수아〉 1:1~9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벽돌을 굽던 노예였고, 모세의 보좌관으로 40년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 본인마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 생각과 뜻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계속 이뤄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의 죽음처럼 뜻밖의 슬픔을 당하거나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2절).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강을 건너 이후 만날 가나안의 견고한 여러고 성이나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머물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실, 상황에 매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끊어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십시오.

셋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깊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8절).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9절).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 12월 19일 화요일

동행에서 오는 확신

〈사무엘상〉 17:45~47

정재욱 목사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신체와 강력한 힘에 압도당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어 버렸습니다. 그는 목동이었던 자신의 모습대로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과 나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뜻대로, 목적대로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승리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들

어오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다윗과 같이 거룩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계속 더해져 거룩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시간,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My Story’가 아니라 ‘History’,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그분만이 주시는 거룩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 12월 20일 수요일

나를 따라라

〈마가복음〉 1:17

강부호 목사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간다면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는 공동체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도 기도의 자리까지는 따라갔지만, 기도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협을 느낄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

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두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전에 없던 담대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12월 21일 목요일

바라보기에 동행하며 닮아갑니다

〈히브리서〉 12:1~2

김승훈 목사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2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왜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믿음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며,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았던 독자들

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교는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대신,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러 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보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곳에 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경주와 비슷합니다. 경주라는 단어에는 ‘싸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란 경주이자,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짐과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연히 떨쳐내고,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향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인내함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진을 지킨다’,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인내를 해낸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 수많은 이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증인들로 기록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놀라운 특권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증인들은 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능력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 12월 22일 금요일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누가복음〉 24:13~17, 30~35

이기원 목사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에 절망과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닫혀 있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말씀은 경전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행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4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 파트너 ‘두플러스!’

기자, 평신도, 선교사의 ‘두플러스’ 사용 후기

두란노서원의 ‘두플러스’가 지난 12월 5일(화) ‘2023 기독교브랜드 대상’ 리딩 부문을 수상했다. 기독교브랜드 대상은 국민일보 주관으로 건전한 기독교 발전과 문화조성을 위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모범 기독교 단체와 개인, 기업 등 27곳이 수상했다.

두플러스는 지난해 5월 두란노서원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복음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이다. 웹사이트와 앱에서 신앙 관련 전자책, 매거진, 오디오북, 온라인 클래스 등을 월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독형 서비스다. 두플러스 론칭 2년도 되지 않아 큰 상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두플러스 이용자 후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다. 두플러스는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트레이너이자 외로운 선교지에서 만난 돌도 없는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두플러스는 정말 좋은 신앙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잠 26:13~28, 잠 27:1~12, 잠 27:13~27, 잠 28:1~14, 잠 28: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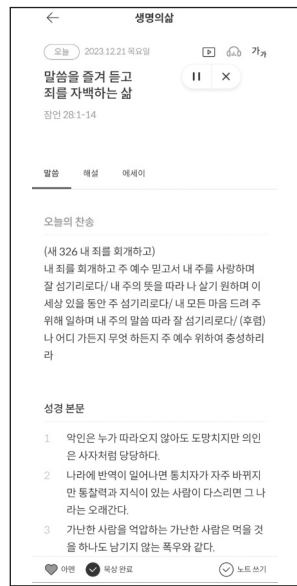
지난 12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생명의 삶> QT 본문이다. 기자의 지난주 출근길 플레이리스트(playlist, 미디어 플레이어로 순차적, 또는 임의 순서로 재생 가능한 동영상 혹은 오디오 파일 목록)이기도 하다.

기자는 매일 아침 ‘두플러스’ 오디오 기능을 활용해서 그날의 QT 본문을 들으며 출근한다. 사무실 자리에 앉아 말씀을 집중해서 읽기 전에 귀로 한번 듣고 가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오디오 기능은 지난해 ‘두플러스’ 론칭 이후 기자가 꾸준히 애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QT하면서 말씀 묵상에 도움을 주는 책을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 콘텐츠’ 기능도 특별하다.

기자는 두플러스 ‘스마트 플랜’ 구독자다. 스마트 플랜은 두플러스의 네 가지 구독 플랜(도서 플랜, QT 플랜, 스마트 플랜, 프리미엄 플랜) 중 하나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도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서 플랜’(월 9,900원)과 모든 연령 QT 자료를 볼 수 있는 ‘QT 플랜’(월 9,900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6개월 정도 두플러스를 이용하면서 QT를 더 자주, 더 잘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졌다.

신앙 습관 잡아주는 ‘신앙 트레이너’

이경희 성도(중앙성서교회)도 두플러스 ‘도서 플랜’ 구독자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신앙 서적들을 읽을 수 있다



▲ 두란노서원의 ‘두플러스’가 2023 기독교브랜드대상 리딩 부문을 수상했다.
◀ 두플러스 QT 화면(왼쪽)과 전자책 오디오북 화면(오른쪽).

는 점에 반해서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이경희 성도가 두플러스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오디오북’이다. 운전하면서 책 내용을 듣기도 하고, 자기 전에 자녀와 함께 책을 듣기도 한다. 두플러스 ‘오디오북’ 기능을 활용해서 공동체 청년들과 함께 독서 모임도 했다. 오디오북을 이용해서 책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을 귀로 듣고, 다시 눈으로 읽으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독서를 경험했다. 이경희 성도는 두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좋은 기능들을 똑똑하게 활용하고 있다. 두플러스 ‘큐레이션(curation; 정보를 수집하고 필터링해서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맞게 정렬하고 제공하는 과정)’ 기능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받아 읽기도 하고, 전자책을 읽으며 형광펜, 메모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좋은 문장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성경 읽기 챌린지나 클래스 강의, 커뮤니티 기능도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좋은 신앙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두플러스는 좋은 신앙 습관들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저만의 ‘신앙 트레이너’입니다. 두플러스 덕분에 복음을 듣고,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플러스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접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두플러스와 함께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경험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만난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

고광민 선교사(필리핀)에게 두플러스는 외로운 선교지에서 만난 돌도 없는 ‘신앙 친구’다. 고광민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때때로 영적 고갈을 경험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영적 고갈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읽거나 신앙 서적을 찾아 읽었는데, 선교지에서는 신앙 서적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읽고 싶은 신앙 서적이 생겨도 재정, 배송, 보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걸림돌이었다.

선교지에서는 QT하는 데도 여러 제약이 있었다. 가족의 연령에 맞춰 QT 책을 여러 권 사야하는데 재정이 빠듯했다. 매일 쌓이는 책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생명의 삶> 한 권을 정기구독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교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더불어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선교의 흐름,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가 주목하는 선교 포인트, 새로 나오는 신앙 서적들의 주제 등 다양한 기독교 정보를 확인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때 두플러스를 만났다. 고광민 선교사는 두플러스를 활용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두플러스를 정기구독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신간 도서들을 읽을 수 있게 됐고, <목회와 신학>, <생명의 삶 PLUS> 등 목회 매거진에서 설교 준비와 성

경 공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큰 고민이었던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맞춰 QT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앙 서적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고광민 선교사에게 두플러스보다 좋은 동역자가 또 없다.

“두플러스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사들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 교회, 우리말 말씀 묵상 등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두플러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플러스가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를 이어갈 힘이 되어주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란노서원 직원 Pick!

통합 검색

두플러스 ‘통합 검색’ 기능은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식의 보고와도 같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이 생기거나 깊은 이해가 요구되곤 한다. 바로 그때 두플러스 통합 검색창에 알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성경 본문, 성경 사전, 도서, 매거진, 온라인 강의 등 필요한 자료들을 손쉽게 찾고,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목회와 신학> 매거진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23년 최신 기사까지 살펴볼 수 있다. 그만큼 자료가 풍성하다. 목회자와 신학생뿐 아니라 신학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검색 기능은 도서 본문 내에서도 가능하다. ‘도서 본문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도서 내에서 관심 단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 강병민 사원(두플러스팀)

전자책 뷰어

두플러스에 정말 좋은 기능이 많지만, ‘전자책 뷰어’ 기능을 추천하고 싶다. 무겁게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더불어 형광펜이나 메모, 북마크 등 부가 기능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을 메모로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작성한 형광펜, 메모, 북마크를 독서노트 메뉴에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독서노트’를 만들 수 있다. 책 내용 중에 은혜 되는 부분을 이미지 카드 형태나 텍스트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독서모임이나 전도 등에 활용하기 좋다.

/ 이승민 부팀장(시스템개발팀)

맛있는 말씀 해설

“...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사 9:6)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던 시대에 주어졌다. 다윗 시대의 영화는 퇴색되었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고, 앗수르의 칼은 남유다 왕국의 턱밑까지 이르렀다. 연합군을 이뤄서 앗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지도자도 부재한 상태였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의 때를 맞이한 것이다.

이사야와 남유다가 직면했던 비참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다.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장차 오실 구세주는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갈릴리에서 나실 것이고, 압제당하던 자들을 번성케 하시며, 추수 때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이셨다. 그런데 압제자의 몽둥이를 쥐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실 메시아는 영웅이 아니라 무능한 아기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어린 아기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하신다.

〈이사야〉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사 11:1)이 나올 거라 하셨다. 53장에서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사 53:2)과 같아서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어 불품없다고 하신다. 무능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력으로 제압하면 그 앞에 당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버림받으셨고 멸시를 당하셨다. 세상에서 외면하고 거리끼는 모습을 택하셨다.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철저히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셨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너무 높아서 다가가지 못할 자

가 없게 하신 것이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을 가진 자도 그분께 나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아기를 찬미하는 이름들을 보면 놀랍다. 철저히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의 본체는 한없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한다. 모두 아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최고의 찬사들이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베들레헬 마구간에 뉘인 어린 아기에게 목자들, 동방박사들도 경배와 예물을 드린 것이다. 아기 예수의 어깨에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은 네 개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된다. 그 네 개의 이름은 곧 우리에게 주실 ‘성탄의 네 가지 선물’을 의미한다.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를 지켜 주신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계신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완성된 평화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이 모든 선물은 만군 여호와와 열정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언약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탄은 이 같은 선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Merry Christmas!”



도육한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12월 25~31일
〈누가복음〉 2:25~38,
〈잠언〉 29:1~31:31



묵상포인트 1: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영생과 영벌을 가른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분을 거절하면 멸망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영원한 삶과 죽음으로 나뉘는 것이다. 영생의 길

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에 대해 묵상하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들을 만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는 예수님이 ‘주의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심을 증언하며 찬양한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84세 과부 안나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한다.

묵상포인트 2: 〈잠언〉 기자는 통치자와 백성, 부모와 자녀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나라를 꿈꾼다. 이를 위해 공의의 실현이 필수다. 공

의와 공평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자질,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백성은 의인이 많아지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한다. 어리석은 자는 노를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근심히 징계한다면 후일 그가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만하게 행하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조급한 말과 분노, 교만을 버리고, 약한 자와의 만남을 멀리해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묵상포인트 3: 〈잠언〉은 인생에서 꼭 함께 해야 할 두 여성에 대해 말한다. 하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 명사로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호크마)다.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때 평안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의 지혜로 사는 삶이 왜 중요한지 깊이 묵상하자.

▶〈잠언〉 기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기를 하나님께 구한다. 성도는 만족이 없고 탐욕적인 삶에서 떠나 자신의 신분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 거하며 지혜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도덕한 이성의 유혹과 술의 유혹을 피하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며,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지혜를 베푼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듯, 나와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자리에서 공의와 공평으로 모두가 행복하도록 일을 추진하자.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훈육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정직히 고백하며 회개하자.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품위를 지키며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기로 다짐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사역을 위해서!

저희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인천에 있는 군부대 교회인 ‘대명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군인 대부분이 휴가를 받기 위해 대명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대명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군인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회복되도록,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부부만 대명교회에서 군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일에만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군인들을 섬겨줄 동역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대명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군인들을 섬기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지금은 군인들이 휴가를 받기 위해 대명교회에 오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대명교회에서 더 많은 군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박정숙 권사(이수공동체)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지난 12월 17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차세대 독후감대회 시상식' (왼쪽),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오른쪽).



청년 선교사 'FA 22기' 모집

2024년 1월 10일 서류 접수 마감

청년 선교사 'FA 22기'를 모집한다. FA 22기에 지원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청년부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하)', '세례 교인'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FA 22기 신청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

이다. 허입신청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2024년 1월 10일까지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fa@tim.or.kr)로 제출하면 된다.

FA 22기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주 동안 합숙 훈련을 시작한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도, 레바논,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역한다.

글로 쓰고, 말로 전하는 하나님 사랑!

온누리도서관 '차세대 독후감 대회' 26명 수상 서빙고 한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 6명 수상

하나님 사랑을 글로 쓰고, 말로 전하는 한바탕 축제가 열렸다. 지난 12월 17일(일)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과 서빙고 한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시상식이 있었다.

온누리도서관에서 개최한 '차세대 독후감 대회 시상식'에서는 차세대 26명이 사랑상, 소망상, 믿음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과 작품은 상단 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조아인 학생(서빙고 유년1부, 소

망상)은 "〈천로역정〉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 쓰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말했다.

서빙고 한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몽골, 네팔,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에서

온 유학생 및 이주민이 참가했다. 수산투 형제(네팔), 알리사 자매(네팔), 어기 형제(몽골), 유성호 형제(중국), 텐 나타 샤 자매(카자흐스탄), 자화 자매(몽골)가 수상했다.

자화 자매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몽골로 돌아가면 몽골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정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영종온누리교회 '송년음악회'

12월 30일 오후 5시 영종온누리교회 백향목홀

영종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Adue 2023!'을 개최한다. 12월 30일(토) 오후 5시 영종온누리교회 백향목홀에서 열린다.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초청하는 열린 음악회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구도자와 낙심자가 다시 교회로 발길을 옮기도록 초청하는 행사다.

송년음악회 'Adue 2023!'에서는 소프라노 김영미(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와 제자들(소프라노 김채원, 이재은, 테너 박성광, 현도명, 바리톤 김재홍, 베이스 오세호, 홍지웅, 피아노 박형진), 하모니카 최상미(한국하모니카예술협회이사장) 등 전문 음악가들이 공연한다.

문의: 010-4629-5633

양재 이웃사랑팀, 쌀 6천kg 전달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600가구

양재 이웃사랑팀이 지난 12월 11일(월)부터 서초구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600가구에 쌀 10kg씩 총 6천kg을 전달했다. 올해 사르밈 프로젝트에서 봉헌한 헌금으로 쌀 6천kg을 구매해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가정 등에 전달했다.

서광열 팀장은 "이웃들에게 단순히 쌀만 보내지 않고 〈요한복음〉쪽 복음과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복음도 전했다"면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순 '함께하는 삶展'

2024년 1월 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발달 장애인 화가 그룹 '예순'이 2024년 1월 1일(월)까지 '함께하는 삶展'을 주제로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화가 21명의 그림 100여 점(디지털 드로잉 작품 30점 포함)을 만날 수 있다. '예순' 화가들은 꾸준히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모아 매년 정기전시회를 열고 있다.

두란노 QT세미나 '굿모닝 갓'

1월 15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

두란노서원 QT세미나 '굿모닝 갓'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년 1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양성민 목사(QT사역 담당)가 QT의 정의와 방법을 강의하고,

현장실습도 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www.duranno.com/semina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3만 원. 문의: 02-2078-325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 개강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가 개강한다.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1~5주차 비대면, 6~8주차 대면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7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수료하면 2학점을 받을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How Mission 갈렙선교학교에서는 매주 강의와 조별 모임이 이어지고, 국내 선교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 010-2833-9936

258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258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30만 원.

258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의 첫걸음', '하나님의 비밀, 성'을 주제로 임항재 목사, 김의수 센터장, 이연숙, 이범석 부부, 황규복, 김숙경 부부 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한누리통합팀, 연탄 1천 장 기부 및 배달

정릉 판자촌 주민 5가구에 전달

온누리교회 한누리통합팀 소속 성도 15명이 아주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2월 8일(금) 한누리통합팀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을 방문해서 정릉 판자촌 주민 5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1천 장을 기부하고, 배달했다.

한누리통합팀은 서빙고, 양재, 남양주, 부천, 대전온누리교회 탈북민 공동체와 하나원 사역팀이 연합한

탈북민과 남한 성도들로 구성된 사역팀이다.

북한에서 남한에 온 지 6년이 된 송바울 형제(한터공동체 총무)는 "오래간만에 연탄을 만져봤다. 이곳에 오니 북한이 생각나고 북한에 온 듯한 기분도 들었다. 오늘 연탄을 나르고 봉사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에 자동 펌프 우물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인도네시아 람풍족 바투바다마을에 자동 펌프 우물을 설치했다. 이번 자동 우물 설치 사업으로 인해 마을 16가정을 포함해 주민 100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마을 주민 마스닝 자매는 "예전에

는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렵고, 물을 길어야 해서 힘들었는데 우물이 설치돼 건기에도 충분한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물을 설치해주고, 큰 기쁨을 선물해 준 NGO 더멋진세상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12월 세레자

■서빙고	김지광 이지혜	■양재	문용석 홍수연	김국천 940802
김경원 801208	김영우 230202	고현진 501111	문희나 210928	맹주리 930105
박영준 770723	김성홍 박미진	김경연 800109	문용석 홍수연	박해리 971025
안지홍 880627	박재이 220725	김도영 790205	백이서 210203	이곤수 830327
유기범 880818	박영준 전주영	남기직 630410	백선욱 이지영	최만혁 870317
이예진 041027	양효성 230703	박공빈 770908	송은우 221226	입교
이현정 050225	양희우 김지혜	유아	송원근 장지혜	김한겸 890917
전문수 920611	이태건 220308	고지안 210106	이태준 221112	이주연 840617
전승환 711115	이영국 조하나	고진우 홍차영	이동훈 김미희	■허브
주신탁 730102	이하건 210812	고지윤 210106	허채은 210915	입교
유아	이승원 김송학	고진우 홍차영	허승진 강신혜	김찬영 011109
강민준 191118	이하늬 190925	김요셉 230720	■대학청년	이채민 050217
강민성 김예슬	이승원 김송학	김종성 윤기정	■여호수아	최은식 981112
김 건 170628		문희우 190821		

장로칼럼

신앙에세이

온 누리, 온 세대, 온전한 교육!

선교는 보고 들음에서 시작된다



남명현 장로
(2000선교본부 대표 장로)

교육은 다음세대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육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교 도구 중 하나다. 선교지에서 다음세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미래 세대의 변화를 통해 그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선교지의 어린 영혼들은 교육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돼 지역 사회와 자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교육 선교의 큰 빛을 지고 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에 열심이다. 한국 선교연구원에 의하면, 2014년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설립한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183개, 중고등학교 55개, 대학교 44개, 직업훈련 학교 35개 등으로 적지 않다. 방과후학교 183개와 신학교 389개까지 합하면 810개나 된다. 10여 년 전 자료이니 지금은 그 숫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해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규모의 2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교육 선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온전한 교육 선교를 수행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교육 수준이 높고,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들과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지만, 교육의 목적과 방법, 내용이 모두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선교 현

장 사역자도 그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 인본주의, 모더니즘, 세속적 세계관, 국가주의 등 비성경적인 요소가 교육과정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선교 현장의 필요와 우리나라의 교육 회복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3년 전 교육 선교팀 사역을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셨다. ‘온누리교육선교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교육선교학교는 온누리전문인 선교학교(OPMS) 수료자 등 교육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상호 학습, 특강, 시범 훈련 등으로 준비하였다. 모두 교육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모임에 훈련 커리큘럼과 교재를 준비시키셨고, 내년 1월 ‘2기 온누리교육선교학교 훈련’을 개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온누리교육선교학교 훈련은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성경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선교사로 파송 받아 사역하는 것을 고려 중인 예비 교육 선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이다. 아울러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습을 통해 선교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성경적 교육과 선교의 토대 위에서 사역에 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국 교육과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교육 선교 훈련과 수료자들의 동역과 연대를 통해 ‘온 누리, 온 세대, 온전한 교육’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

제2기 온누리 교육선교학교 훈련
기간: 2024년 1월 6일~2월 24일
매주 토 오후 5시 30분
장소: 도곡교육관 온유홀(1, 7주), 온라인(Zoom, 2~5주), 교육선교 현장 탐방(6주)
문의: 010-2710-2797(서원순 교육선교팀장)



김창호 목사
(강남D공동체, 러브소나타본부장)

러브소나타를 준비할 때마다 숭한 고비가 있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교세(敎勢)의 차이가 있어서 오랜 경험 이 있어도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지난 10월 러브소나타 미야기를 개최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일본인 목회자 45명이 모여서 선교포럼을 열었다. ‘차세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슈였다. 일본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의 수가 평균 0.5명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만큼 일본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차세대와 청년 전도가 이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맞춰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원한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일본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최적의 문화 환경을 모두 갖추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보다 ‘메시지’라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브소나타 미야기는 인생의 꿈과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표였다. 미야기현의 청년들에게 러브소나타가 희망을 주는 복음이 되기를 원했고, 일본 교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상보다 청년 러브소나타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러브소나타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집회를 함께할 교회가 고작 두 곳뿐이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 10여 명의 실행위원이 모여서 실무를 담당하고, 수십 개의 협력교회가 함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

악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힘겨웠던 것은 프로그램 준비였다. 청년들을 위한 러브소나타가 목표였기에 출연자와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 준비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이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흐름을 원했기 때문이다. 주제대로 모든 준비가 ‘New Beginning’이었다.

그러나 미야기는 어느 지역보다 청년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러브소나타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집회가 되기를 바랐기에 본부와 일본 실행위원들 모두 집회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특히 본부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한 교회라도 더 늘리려고 미야기현 내에 있는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다. 30여 개 교회를 방문했고, 집회 직전에는 협력교회가 50개까지 늘어났다. 무엇보다 현지 일본 목회자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어떤 일정보다 유익했다. 한결같이 러브소나타에 진심 어린 감사와 더불어 일본 선교를 위한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선교는 보고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재발견했다. 역시 직접 현지의 목소리를 듣고, 영적 환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건넌 말 한마디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일본 교회의 목소리에 반응해 주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당부가 그것이다.

성도들의 간증과 참가자들의 목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회를 마치고 러브소나타 참가자들이 경험한 은혜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성도들의 귀한 간증이 사역자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킬 만큼 큰 위로가 되었다.

러브소나타를 통한 일본 선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변함없는 헌신이 어우러져서 머잖아 일본 열도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넘쳐날 것을 믿는다.

사역칼럼

덕분에 ‘사라나’가 살았습니다!



전홍열 선교사
(평택 온누리M센터)

선교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이 가득한 선교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커다란 은혜와 감격이 있다. 나 역시 이 마음으로 주어진 소명을 따라가려 한다.

평택 온누리M센터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기쁨보다 낙심과 근심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올해 6월 평택 온누리M센터에 출석하는 한 몽골 성도의 어려운 상황을 접했다. 몽골에서 온 부부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23주 차인

6월 11일 500g의 조숙아를 출산했다. 너무 작은 생명이라 병원에서조차 그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다. 16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 치료비가 300만 원이 넘었다. 그 성도 가정에서는 도저히 치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 이주민 선교의 어려운 실정을 알기에 낙심과 포기 앞섰는지도 모르겠다. 그 상황을 해결할 어떠한 실마리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 몽골 부부의 등을 토닥이며 한마디 했을 뿐이다.

“최선을 다해보자.”

기도하면서 동역자들에게 사라나(몽골 부부 아이 이름)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온누리신문>과 NGO 더멋

진세상에 조숙아 사라나의 상황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회생과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다. 십시일반 성도들의 귀한 후원이 이어졌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도 사라나가 치료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줬다. 그 즈음 온누리M센터와 기아대책이 MOU를 맺었다. 사라나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들은 기아대책에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후원 요청 영상을 내보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사라나가 치료받는 서울삼성병원 의료진이 큰 금액의 치료를 후원한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믿음이 작은 선교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누리교회 성

도, NGO 더멋진세상, 기아대책, 서울삼성병원을 통해서 사라나 가정에 전해졌다. 지금 사라나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사라나를 안고 눈물을 적시던 엄마 별려러 자매와 씩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크게 감동해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잇던 아빠 뱀무 형제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 이 지면을 빌려 사라나 가정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인큐베이터에서 세균감염이라는 위중한 상황도 있었지만, 잘 견뎌준 사라나에게도 감사하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후원 계좌: 하나은행 438-910035-96505(평택 온누리M센터)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 경력직 채용
업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업무
형태: 정규직 사원(주 44시간 근무)
자격: 부동산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부동산 거래 및 관련 법규, 세무, 부동산개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CMN 라파티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5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라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1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김지현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 박성은B
박성천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설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열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성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자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을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정훈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카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황중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중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용산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김종균 누이엘은 김재우 박재우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생부애들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이
클 스티븐 이강혁 이민영 이진희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현 정육진 제인랑
황연선 최정현 허효경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강기용 권대식 권에람 김가희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재석 김재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김지현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 박성은B
박성천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변대설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열 양성진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성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자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을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정훈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카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황중연

● 사역장로

강경국 강가석 강영재 강이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환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중 김병철
김명훈 김상식 김석인 김진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김수역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김수웅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김영수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강기홍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강동수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강부순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강상훈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이우경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희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정 이용하
이우근 이영대 이영희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준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우영 정장규 정강무 정대서
전도영 정문규 정보원 정보원
정승중 정영열 정영호 정재택
정재현 정형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승선 최득린 최 명
최종길 최희영 최무옥 최홍수
한규종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정격 한형식 함공식
한선호 허광수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혜남 황영욱 황용오

이원장

김수광 김수영 김수준
김 완 김원규 김원준
김 윤 김원규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성근 박성래 박성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박남인 배승웅 배호현 배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병범
송영태 송우신 송일식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환
안종인 안태환 양우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태 오성연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우영도 우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영덕 윤복수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fondant

크리스마스 마켓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담은 풍당
이번 크리스마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을 선물하세요

○ 어린이를 위한 선물 ○



우주최강 양양순 (성탄특집3D)

양순이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왕폐더사가 (우리말 더빙)

희생과 구원의 메시지, 나니아 연대기를 잇는 기독교 판타지



부엉이학교 -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부엉이학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 어른을 위한 선물 ○



루시 시머스와 평강의 왕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입원한 다섯 살 꼬마숙녀의 놀라운 전도 영화



디스커버링 -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잇쉬의 서재 2 : 북 콘서트

김복유의 감미로운 찬양과 함께 시청자가 직접 나누는 예수님의 은혜



크리스마스(Christmas)란?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의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